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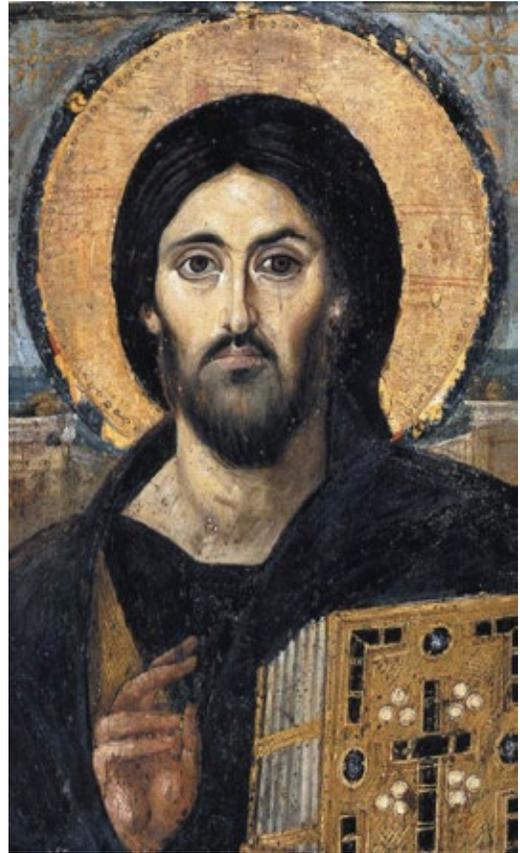
2022년 8월 14일
제1909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49-51)



〈그리스도〉, 6세기, 시나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 이집트

연중 제20주일 (다해)

제 1 독서 예레 38,4-6.8-10 |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화답송 시편 40(39)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2 독서 히브 12,1-4 |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12,49-53 |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⁹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⁵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⁵¹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⁵²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⁵³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은 ‘위로와 희망의 표지’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날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바로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78 번, 신약 성경에서 71번이나 나옵니다. 불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불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창세 15,17; 탈출 3,2 참조). 또한 불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예레 20,9 참조). 모세는 하느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고,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원수들을 태워 버리고 죄악을 정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불,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르신 불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빛이시고 불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도 불의 강림으로 표현됩니다(사도 2,3 참조).

이 불이 세상을 밝힙니다. 불이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불입니다. 동물적 본능이나 욕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불, 예수님의 빛이 불처럼 우리를 이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불을 지핍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비인간화된 구조와 차별과 돈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불사르려 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폭력까지 휘두르며 이 불을 끄려 합니다. 복음서는 헤로데가 무죄한 아이들을 살육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마태 2,16-18 참조). 예수님조차 복음의 불을 끄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지시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 미움과 폭력과 교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스르고 악을 지키려는 술책에 대하여 신자들은 분열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짓 평화와 부정으로 이룬 일치는 세상을 더 악으로 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피신 불이 잘 타고 있습니까? 가족들 사이에 복음의 정신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불이 우리 마음속의 이기심과 어두운 욕망을 태워 정화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용진 요셉 신부>

목상

“겸손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 승천 대축일, 복음에서 ‘성모찬송(마니피캣)’이 두드러집니다. 이 찬송가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사진”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7-48 참조). 이 비천함, 이 겸손이 바로 마리아의 비결입니다.



Assumption of the Virgin,
by Nicolas Poussin in 1650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umiltà)”이라는 단어는 “흙, 땅”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humus)’에서 유래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높은 곳, 하늘에 도달하려면, 땅처럼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섬기는 이를 들어 높이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직함”이나 “호칭”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좋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실 뿐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종” (루카 1,38)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 다른 무엇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타인들이 나를 알아보길,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길 바라는가, 아니면 섬기려고 노력하는가? 마리아처럼 나는 귀 담아 들을 줄 아는가, 아니면 단지 말만 하고 주목받길 원하는가? 마리아처럼 나는 침묵할 줄 아는가, 아니면 항상 재잘거리는가?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툼이나 논쟁을 진정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남보다 앞서려고만 애쓰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봅시다. ‘**과연 나는 겸손한가?**’

마리아는 자신의 작음을 통해 가장 먼저 하늘을 얻습니다.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비우는 사람만이 하느님으로 채워집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신의 겸손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루카 1,28)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겸손은 항상 출발점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는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가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이 필요한 이들’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리아는 일평생 대부분의 삶을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나날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다. 은총이 가득한 나날은 종종 침묵 속에서, 다른 나날과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길은 항상 마리아에게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의 겸손, 기꺼이 하려는 마음, 죄에 물들지 않은 마음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하시면서 말입니다.

기쁘지만 겸손하게, 언젠가 성모님과 함께 하늘에서 함께한다는 희망으로 활기차게, 성모님의 축일을 지냅니다!

성모님께서 이 여정의 비결이 겸손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를 잊지 맙시다. 또한 작음과 섬김이야말로 이 목표, 곧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비결임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5일〉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 8월 15일(월) 오후 7:30
-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천주교회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 토, 월요일인 경우 의무 축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미사 후 마침 성가는 애국가 4절까지 부릅니다.

2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8월 17일(수) 오후 7:30
- 주제 : '예수님과 제자들'
(12 제자와 바오로) / 복음과 사도행전
- 감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7주간 성경 특강 마지막 날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성경 특강을 준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빛을 발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8월 14일(일) 오전 11:30 (B-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8월 14일(일) 오후 1시 (B-3,4)

5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A-1,2,3)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B-2,3)

7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8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 - 6학년
- 신청 : 8월 14일(일)까지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9 대부모, 대자녀 신앙으로 인도하기 프로젝트

대부모는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모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새 신자들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 대부모와 대자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
- 대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 새 신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 일시 : 8월 14일(일)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
- 문의 : 교육부 (703) 627-1932

10 하상 성인학교 2022년 가을학기 안내

- 일정 : 9월 13일(화) - 12월 9일(금)
- 등록 : 8월 28일(일), 9월 4일(일), 9월 1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 217-2775

11 하상 한국학교 교사모집

-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정선 교감 (571)217-8941
hasangkoreanshcoolva@gmail.com

12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신청 : **8월 7일(일) - 8월 28일(일) 2시 미사 전, 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13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4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 및 체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며, 체육관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15 성 정하상 성인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모시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성 정하상 성인과 더불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후손들이 조상들의 묘지를 찾을 때 한국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구역을 상징할 수 있는 성상 건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상은 2점이 설치되며, 현재 의정부 교구 염동국 신부님께서 제작하고 계십니다. 성상은 미소를 보이며 조상들을 맞이하고 계신 모습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 비용은 제작 및 배송,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6만 5천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특히 Fairfax Memorial Park에 조상들을 모신 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6 CARITAS WONJU 명칭 변경

- 본당 Caritas Wonju의 명칭이 Hasang Caritas로 변경되었습니다. Hasang Caritass는 고국 복지후원, 아동결연 후원, 현지 후원, 해외 후원(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불우이웃 돕기 등의 후원사업을 합니다.
- 사랑과 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은 액수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들의 후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Hasang Caritas 사업에 신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말마다 친교실(오전 8시- 오후 12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Caritaswonjuva.org 를 참고하세요.

17 성지순례 문의

-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례는 **본당 단체나 행사와는 무관함**을 공지합니다.
- 본당 차원의 순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가을, 혹은 2024년 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7일(연중 제19주일)

주일 헌금	\$ 6,004.00
교무금	\$ 11,170.00
교무금(신용카드)	\$ 2,270.00
감사 헌금	\$ 900.00
2차 헌금	\$ 8,480.00
온라인 봉헌	\$ 3,120.00
합계	\$ 31,98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8월 18일(목) 오후 5:00-6:00
8월 19일(금) 저녁 8:00-9:00
8월 21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김대우 모세 신부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저기까지 가 주실 수 있나요?”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11:00 AM</td> </tr> <tr> <td>• 7:30 PM</td> <td></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 7:30 P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 7:30 PM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